

1차 세계대전 무기, 청산리전투서 日 심장 겨누다



1907년 영국 출신 아서 맥켄지 기자가 찍은 '정미의병'의 모습. 오른쪽 네번째 인물은 대한제국군의 외투를 입고 있다.

15 (中)항일무장투쟁에 사용된 무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3.1운동 전후로 일본에 대한 무장투쟁을 펼친 독립군과 광복군은 어떠한 무기를 사용했을까.

확고한 보급체계를 갖추기 힘들었던 독립군과 광복군의 무기와 관련된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한제국군이 사용했던 무기들과 중국 국민당 정부 등이 지원한 군사원조 물자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흘러들어 갔다는 점, 당시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대한제국군 군사종속 막으려다 고인 조달체계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등 외세의 이권침탈이 심해지자 우리 선조들의 자주국가에 대한 열망은 높아졌다. 1897년(광무 원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황제는 같은해 10월 12일 원구단(園丘團)에서 주권국인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고종황제는 앞서 1894년 갑오개혁 때 한국의 신식 군대의 편제, 계급과 군복 등을 제정했지만, 대한제국군의 무기도입과 조달은 쉽지 않았다. 오늘날 방산비리를 막고 무기체계를 국산화하겠다고 세워진 방위사업청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대한제국군은 외국인 군사자문과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교관들의 영향으로 다양한 제식소총을 사용했다. 일각에서는 특정국가에 군사적 종속을 막기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 보급선을 다양화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제국군이 사용한 소총은 러시아제 베르당 소총, 독일제 마우저 1871, 미국제 레밍턴 롤링블럭 소총, 일본제 무라다 13식 소총, 영국제 엔필드 스나이더 소총 등이다.

중화기로는 미국제 개틀링건, 맥심 기관총, 암스트롱포, 크루프 75mm속사포 등을 사용했다. 무기체계 자체는 절대 빈약하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한제국군은 짧은기간에 여러 무기체계를 도입하다보니 보급 및 조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힘들었다.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되면서, 대다수의 무기들은 일본군에 노획됐지만, 일부 대한제국군인들과 함께 대한제국군이 사용하던 무기들의 일부도 독립군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1차대전 종전, 3·1운동 무장역량 강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고, 전 세계는 종전 후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독립군의 무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제1차대전이 끝나자 본국으로 귀환하기 위

대한제국 해산 후 일부 무기 독립군으로 러·佛·獨 1차세계대전 종전 후 무기 매각 북로군정서 소총 1800정 등 대거 확보 獨 마우저자동권총 청산리전투서 활약

제식무기 통일안돼 조직적 전투 어려워 권총으로 요인암살 등 소규모 게릴라전

M1891모신나강(Mosin Nagant)으로,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을 연기한 전지현도 모신나강 소총을 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러시아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미국제 등의 무기들이 독립군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대한제국군과 마찬가지로 통일되지 못한 제식무기로 인해 후속군수지원이 쉽지 않아 대규모의 조직적인 전투수행은 여전히 어려웠다.

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했던 흥범도 장군이 사용하기도 했다.

탄약확보 등의 문제로 대규모 작전수행에 제약이 따랐던 독립군이었지만, 청산리 전투 당시 맥심 기관총, 프랑스제 루이스 경기관총, 그리고 노획한 일본제 96/99식 경기관총 등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광복군 창설, 연합군의 지원을 받다.

1940년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이 창설되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던 연합군의 군사지원이 이뤄진다.

광복군 창설에 큰 힘을 실어주었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광복군에는 독일의 Gew 88과 Gew 98을 중국이 개량한 한양 88식과 국민 23식이 사용됐다.

1943년 광복군의 일부가 버마 전선에 투입됐고, 이들은 영국으로 부터 헬멧 등 전투장구류를 비롯해 장탄수가 10발이나 되는 영국제 리-엔필드 소총을 지급받기도 했다.

1945년 광복군의 일부가 미국전략사무국(OSS)으로부터 특수 공작 훈련을 받게 되면서 미군의 무기들도 상당 수 유입됐다. 미군의 명총 M1개런드 소총은 장탄수 8발의 반자동 소총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다.

대한제국에서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항일무장투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후속군수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군은 5.56mm 소총탄과 9mm 권총탄을 사용하는 소총과 기관단총 등을 제식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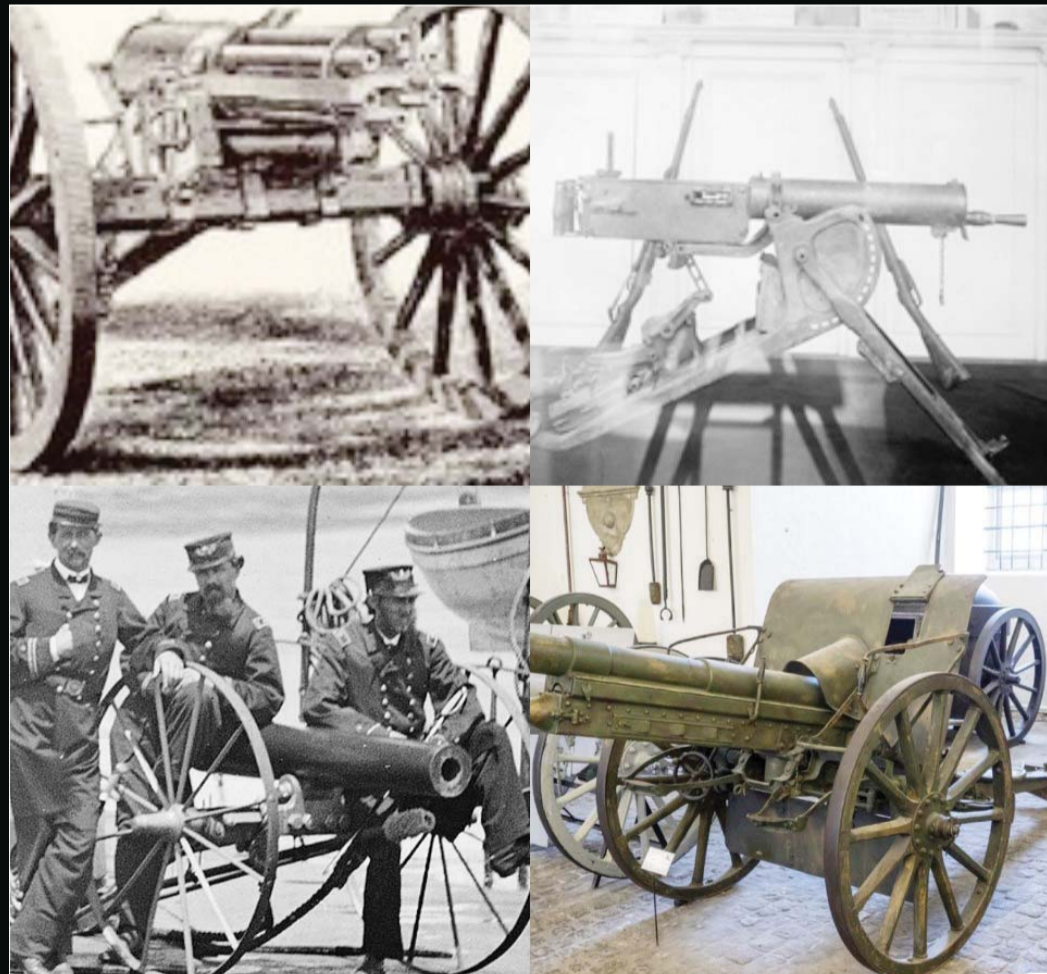
대한제국에서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무기의 보급과 군수지원의 문제는 현대 국군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최근들어 특수작전부대를 위한 신형소총 도입이 거론되지만, 총기개발에 소극적이던 국내 기업을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야전 군인에게는 지금 싸울 총이 필요한데, 정부는 국산화와 명품무기에 틀어 빠져있다. 명품무기라 불렸던 K-11복합소총은 폐기가 될 예정이다. 이총을 만들었던 회사는 이제와서 특수부대가 사용할 신형기관단총을 만들겠다고 한다. 선조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문형철 기자 captinm@

metroseoul.co.kr

/자료=독립기념관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개틀링건, 맥심기관총, 크루프 75mm 속사포, 암스트롱포. ▶마우저 자동권총. 대한제국 군대해산과 봉기를 담은 그림.

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대기 중이던 체코군단이 독립군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에 상당수의 무기를 매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본국이 있는 유럽으로 귀환하려고 배를 타고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장거리 이동 중이었는데, 배를 타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제해야 했다.

덕분에 북로군정서는 1920년 당시 탄약 24만 발, 권총 150정, 수류탄 780발, 기관총 7문, 소총 320정 ~ 1800정, 그리고 제식 미상의 포 2문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는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들 무기 중 대표적인 것은 러시아제 소총

독립군은 요인 암살, 소규모 게릴라전을 주로 펼쳤다. 때문에 권총은 이런 독립군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무기였다. 우선 소총에 비해 종류가 적었고, 탄약의 확보도 상대적으로 쉬웠다.

독립군이 사용한 대표적인 권총은 독일제 마우저 자동권총과 루거 P08 권총이었다. 독일제 무기를 도입했던 중국 국민당군을 통해 입수할 수 있었고, 당시 스페인 등지에서 복제품이 생산되기도 했다. 마우저 자동권총은 봉오동 전

